

# 수화는 또 하나의 언어...

김철환 수화통역사(한국농아인협회 기획부장)



김철환 수화통역사는 ... 1990년 원심회에서 수화를 배우기 시작해 한국농아인협회 정책부장, 세계장애인대회 사무국 사업팀장,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정책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정 운영위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법제정위원,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자문위원,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및 장애인 인권교육 등의 활동을 펼쳐왔으며, 보건복지부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한국농아인협회장상 등을 수상했다.

“누구를 동정하거나 보살핀다는 입장에서 수화통역사나 장애인을 위한 NGO활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장애인을 보살핀다는 생각 자체가 편견일 수 있죠. 장애인도 당연히 권리를 가진 한 명의 개인입니다. 이런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장애인들의 불편한 점을 해소해 주는 것은 물론 부당한 점을 개선시켜 주는 것이 저의 할 일이지요. 그저 운명이라 생각했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수화통역사 김철환 씨(49·한국농아인협회 기획부장)는 1990년 원심회에서 수화를 배우기 시작한 이후 수화통역사로 활동해왔고 원심회, 세계장애인대회 사무국,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한국농아인협회 등에서 활동하며 청각장애인들과 함께해왔다. 그는 자신의 노력에 대해 보시행이나 나눔이라는 말로 포장하는 것은 한사코 거부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었을 뿐이라는 김철환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운명처럼 만난 수화로 새로운 인생 살아가

1990년 당시 스물 여섯의 청년이었던 김철환 씨는 직장에서도 집에서 누구와도 소통하지 못했다. “성장 당시 집안 환경이 불안하기도 했고, 10대 때 친구가 자살을 한 것이 큰 충격이었어요. 이후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 버렸죠. 일종의 자폐적 성향을 보이며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게 어려울 정도였어요. 집에서는 부모님도 포기할 정도로 저는 소통하지 못했죠.”

외로웠던 그는 혼자서 책 읽는 것을 좋아했다. 원심회를 만난 것도 광화문의 서점을 들렀다가 우연히 조계사를 찾은 것이 인연이 되었다. 원심회 수화반의 모집공고를 보게 된 것이다. 그에게는 운명적인 만남이 아닐 수 없었다. “평소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도 했고 수화를 배우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죠. 바로 원심회 강좌를 신청해서 수화와 접점을 배웠죠. 쉽지 않았지만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바로 수강신청을 한 그는 일주일에 2~3회씩 부천에서 종로까지 왕복 3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를 오가며 수화반 과정을 듣게 된다. 그리고 청각 장애인들과 깊이 소통할 수 있게 되면서 친구가 생겼다. 그때서야 알았다. 내면 깊숙이 누군가와 간접히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것을 말이다.

“그들과 저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대화할 상대가 없다는 거였고 그러다 보니 나의 문제를 공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처절히 외로울 수밖에요. 그들과 수화로 소통하면서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꼈죠. 지나가는 장애인 친구들을 불러 포장마차 같은 곳에서 밤새 술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깊이 자리잡고 있는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었죠.”

매주 일요일 조계사에서 수화법회를 진행하고 행사가 있을 때는 수화 공연을 하는 등 수화봉사에 매진했고 92년도에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다. 또한 경기대 사회복지학과에 들어가 공부를 했고 제1회 민간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땀다. 그는 이 모두가 자신이 절어가야 할 운명의 길임을 직감했다.

“불교에서 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과거의 습이라고 해석을 해요. 뭔가 이전에도 이런 일

을 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운명 같은 걸 느꼈어요. 당연히 제가 가야할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물론 직장을 그만 둘 때는 가족들이 격정도 많이 했죠. 하지만 저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 불교를 통해 세상의 지혜를 구하다

그의 아버지는 독실한 불자였다. 집에는 늘 아버지의 지극한 정성이 담긴 독경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가 아는 불교는 비논리적인 종교일 뿐이었다. “옛 어른들이 절대적 신앙으로만 접근하는 불교가 그다지 와닿지 않았어요.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생각이 들었고 거부감이 있었죠. 그러다가 1990년 불교방송이 개국하면서 방송으로 불교를 접했어요. 당시 고승 열전 등의 프로그램을 열심히 들었는데 그때 느낀 것이 놀라운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며 논리 이외에 다른 세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였죠.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작용 반작용 등의 가치가 절대적이지 않음을 깨달은 거죠. 마음자리, 본성, 참나 이런 것이 분명 있을 거라는 강한 확신이었습니다.”

### 내면의 병 앓던 스물 여섯의 청년

### 원심회에서 수화 배우며 마음 치유

### 청각장애인과 소통하며 외로움 극복

### 원심회 봉사 시작으로 NGO활동가로

### 한글자막 방송, 한국 영화 자막 등

### 청각 장애인들 위한 영상물 제작

### 극장 시설 개조해 장애인 영화제 열어

### 불교 수화 표준화 작업에도 적극 참여

이후 그는 불교방송을 통해 꾸준히 공부를 했고 원심회를 만나면서 불자로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에게 수화 강의를 진행했다. 봉사로 시작한 일이지만 서로 다른 처지의 사람이 모여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그는 말한다. “청각장애인들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들의 처지가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한 그들의 입장에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터부시 하는 경향도 있죠. 장애인들은 장애인들끼리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데 제가 그들의 삶에 끼어든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이질감 같은 거죠. 또한 장애인 스스로 비장애인에게 갖는 열등의식 같은 것도 분명 있죠.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다르게 생각하다 보니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갈등이 빚어졌어요.”

외부의 차가운 시선도 만만치 않았다. “왜 말짱한 사람이 병신들과 같이 일하냐?” 이런 질문을 받기도 했다. 또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니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수시로 부딪히는 갈등과 차가운 시선을 이겨낼 수 있었던 데에는 불교공

부가 큰 힘이 되었다고.

“억울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불교공부를 통해서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음을 또 그들과 내가 다르지 않음을 알았어요.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면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없음을 알았죠.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지만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고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지나가버리잖아요. 그 지혜를 불교를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마미 수행 등을 하며 일상에서 깨어 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어려움에 부딪혀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큰 힘을 불교 수행을 통해 얻었죠.”

그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참자유의 지혜를 터득했고 이런 마음가짐은 그가 좀더 넓은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시위 참여도

이후 그는 본격적으로 청각 장애인을 위한 NGO 활동가로 일하기 시작한다. 장애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한국농아인협회와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 방송의 한글 자막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미국은 80년대부터 자막 방송을 시작했어요. 방송개혁위원회를 통해 꾸준히 한글자막 방송을 요구하는 방송법 개정 운동을 벌였죠. 또한 기존 방송과는 송출신호가 달랐기 때문에 가전제품 회사와도 협의를 해나가야 했죠.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등이 닥치면 이 사안은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98년 드디어 방송의 한글 자막화가 이루어졌습

니다.” 장애인들도 자막을 통해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자막화의 물결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90년대 후반 영화 쉬리가 히트를 하면서 한국영화의 전성기가 열렸죠. 청각 장애인들도 쉬리를 보고 싶다는 요청이 많았어요. 요즘이야 디지털 시대나 자막을 넣는 것이 쉽지만 필름으로 영화를 상영하던 당시는 쉽지 않은 일이었죠. 공동모금회의 공모를 통해 영화 자막과 프로그램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죠. 강제규필름을 찾아가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영화에 자막을 넣을 수 있었어요. 당시는 필름 영화 시대라 동판을 찍어 자막을 넣었고 이를 송파구민회관에서 상영을 했는데 반응이 엄청났죠.”

이후 미술관 옆 동물원, 공동경비구역JSA 등 40~50 편의 영화를 자막화해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보급했다. 이는 이후 ‘장애인 영화제’를 개최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된다. “부천영화제를 보면서 장애인 영화제를 개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2000년 드디어 장애인 영화제를 개최하게 되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는 일반극장에서 장애인들이 영화를 보기는 힘들었죠. 청각, 시각, 이동 장애인 모두가 볼 수 있는 극장 환경을 만들어 영화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홈페이지를 참조해 장애인 영화제의 컨셉을 잡고, 국내 업체의 도움을 받아 집단 보청기와 디지털 보급기, 이동 장애인들을 위한 진동 의자,

## ※ 2016년 달력 ※



**12절(벽걸이형) 달력**  
**100부 @ 1,000원**  
**삼천부 이상 @ 800원**

## ※ 영가옷 · 예수재용품 ※

**영가옷 C형<남> 정가 1,000원** **영가옷 C형<여>** **할인가 800 (100벌 이상)**

**동남영가옷 정가 900원** **동녀영가옷** **할인가 700 (100벌 이상)**

**예수재함A (50개 1박스) 할인가 50,000 (50개 이상)**

**수자영가옷 정가 800원** **할인가 600 (100벌 이상)**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할인가 800 (200개 이상)**

# “장애인 권리 보장되는 사회돼야”



김철환씨가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예비 후보인 심상정 국회의원과 수화언어법 제정 운동을 약속하며 웃고 있다.



김철환 씨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대중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다.



1990년 원심회에서 수화를 배우기 시작해 수화 강사로도 활동해왔다. 사진은 원심회 수화초급 수업 진행 모습.



원심회 26주년 창립 기념법회 통역 모습. 사진 왼쪽은 조계사 전법국장 지현 스님.

시각 장애인 내레이션을 위한 동시통역 시스템 기기를 설치했다. “당시 극장의 양해를 구해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어요. 파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죠. 이렇게 시작된 장애인 영화제는 현재 16회까지 이어지면서 장애인들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법안으로 보장돼야

그는 이후 한국농아인협회, 세계장애인대회 사무국, 장애인정보문화누리 등에서 활동하면서 장애인들의 권익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현재 김 씨가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은 ‘한국수화언어법안’이다. 이는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권리로 보장하는 법안으로 수화를 하나의 보편적 언어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영화 도가니 개봉 이후 청각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는 장애인이 당한 성폭력에만 초점이 맞춰진 경향이 있죠.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청각장애인 학교의 교사 6.1%만이 수화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소통할 사람이 없으니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알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이들의 언어를 알아듣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들과의 소통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니 청각장애인 학교 교사가 수화통역사 자격을 취득해야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화 언어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청각장애인 문화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의사소통권을 보장해 주는 동시에 수화통역사 권리 보장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그는 덧붙인다.

물론 불교계의 활동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원심회의 행사 때마다 수화봉사를 하는 것은 물론 불교수화 표준화 관련 작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현재 7명의 원심회 멤버와 이 작업을 함께하고 있어요. 사실 불교에는 수화화 표현하기 힘든 낱선 단어가 많죠. 불자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처음 듣는 이들에게는 어려운 단어나 새롭게 용어를 만들어 낼 때에는 고민이 많죠.” 지금까지 원심회는 예불의식, 반야심경, 찬불가 등이 수화로 번역됐고 최근에는 천수경을 수화 번역 중에 있다고.

### 장애인 전문 포교사 양성 시급

김 씨는 장애인 포교를 위해서는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장애인 스님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신교 쪽에서는 장애인 목회자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아직까지 장애인 스님이 배출된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장애인들의 마음을 장애인들이 아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수화도 마찬가지죠. 일반인들의 통역을 거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장애인 종교지도자가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함께하고 어려움을 나눌 때 훨씬 더 불법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곳곳의 현장에서 불자 장애인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스님이나 전문 포교사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는 불교계 장애복지에 대한 시선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한다. “불교 복지는 그동안 양적 팽창을 하면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이 의사결정권을 가진 존재라는 인식보다는 그들의 욕구를 잘 살펴 돌봐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죠. 이는 과거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지요. 요즘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장애인을 바라보자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는 장애인들의 권리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불교계는 아직까지 그들의 욕구충족에 맞춘 정책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개선되어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장애인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또한 그는 경제적 논리를 우선시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장애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큰 걸림돌이라고 말한다. “2003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까지 경제적 논리에서 장애인들의 권리는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건물 하나를 지을 때에도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고려해 짓는 곳이 많지 않잖아요. 비용이 더 드는 장애인 구조물 설치에 외면하고 있는 거죠.”

늘 수행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하는 김철환 씨. 그는 오늘도 운명처럼 만난 장애인 친구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외롭지 않았으며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 행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글·정혜숙 기자 · 사진·노덕현 기자

## 전법일기

### 불교 스카우트로 청소년 포교

어린이 청소년 법회를 진행하는 지도법사라면 누구나 우리의 아이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원하는지를 항상 고민할 것이다. 지금 이 사회엔 공부 잘 하는 사람만이 모범생이 되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불량학생으로 취급 받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공부란 무엇일까? 모르는걸 알아가는 게 ‘공’이고, 아는 걸 슬기롭게 활용하는 게 ‘부’가 아닐까 생각한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참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일까?

한번은 수원 용주사에서 진행했던 불교 스카우트 캠프에서 한 불자아이에게 커서 무엇이 되고 싶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아이이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다. ‘훌륭한 사람’이라... 불교에서는 훌륭한 사람에 대해 자기수행과 자

간 내에 전국지부가 결성된 상태다. 현재 전국 40여개 사찰에 단위대가 조직 구성 총 1,200여명의 대원과 지도자 13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찰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불교스카우트 활동은 자연스럽게 국제 활동을 통한 국제포교로도 이어지고 있다.

2014년 8월에 한국에서 열린 전세계 청소년들의 축제 국제 챔버리 대회에서의 일화다. 45개국 8000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한 챔버리에는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의 화랑단이 참가했다. 이 대회 때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렸지만 아이들은 개념치 않았다.

한 아이의 소감이 아직도 귓가에 울린다. 이 아이는 “불교를 잘 몰랐는데 합장주가 불교에서 쓰이는걸 알았고, 쉽게 만



그림 · 박구원

비나눔으로 본인과 이웃이 모두 행복한 사람을 말한다.

아이에게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야”라고 말해주었다. 스카우트 운동은 아이들이 바로 이런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참공부’라고 생각한다.

스카우트 운동은 대자연 속에서 단체 생활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지도력을 키우며 스스로 잠재 능력을 발전시킴으로써 개인적 성장과 민주 시민의 자질을 배양시킬 수 있도록 한다. 또 청소년에게 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신체적, 지적, 사회적, 정신적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개인으로서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 지역과 국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단에서는 이런 스카우트 활동을 어린이 청소년 포교와도 접목하고 있다. 공식 예산을 편성해 특화된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등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중, 2012년 6월 청계사에서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이 공식 출범하게 됐다. 현장에서 청소년 포교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권역별 조직체계가 수립돼 단기

들어서 편했다. 태풍이 와서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전혀 무섭지 않고 재밌었다”고 말했다.

대회에서는 불교관을 설치해 한국불교를 알리는게 효과적이었다. 많은 전세계의 아이들이 불교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또 친숙해지는 것을 느꼈다. 한국불교를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자연스럽게 홍보함으로써 한국 불교의 위상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계 청소년들과 교류함으로써 국제적인 안목을 지닌 불자엘리트로 육성 할 수도 있고 불교를 믿는 아시아 국가들과 교류할 수 있다.

한국불교의 미래는 청년불자에게 달려 있으며 여기에는 스카우트 활동이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거룩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과 사회에 대한 봉사과 민족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데 책임과 의무로 최선을 다할 때만이 한국불교의 미래가 담보될 것이다.



명원 스님(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 지도법사)

플럭서있는 소전의식을 위한

# 연꽃 소전대

귀사찰에 품격있는 소전의식을 위한 연꽃 소전대 작품을 제안합니다. 작품성과 실용성 모두 완벽에 가까운 수제 작품입니다. 연꽃소전대 검색

디자인특허 및 실용신안 특허를 모두 획득한 작품이며 장인의 따م과 혼뿐만 아니라 예술가의 열정이 담긴 작품입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으로 귀사찰의 기제사나 천도제의 마지막 의식인 소전 의식을 준비 하신다면 사찰의 품격과 신도님들의 품격또한 높여 귀사찰의 무궁한 발전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소] 1,200×600×1,300 (가로×세로×높이)mm  
 [중] 1,600×700×1,700 (가로×세로×높이)mm  
 [대] 1,700×800×1,800 (가로×세로×높이)mm  
 <대(大)에는 반야용선조각이 추가됩니다.>

■ 연락처 010-6428-3889 / 010-9195-1044  
 ■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82번길 30 불교조각연구원

## JJUN Heating System Module

“**쫐**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엔지니어링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 04 D.I.Y 시공 가능
- 05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설치 장소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 시공 대상 : 사찰 및 임차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www.jjunheating.co.kr

■ 지역대리점

서울 : 010-5097-8291    수원 : 010-5211-7260    남양주 : 010-9183-9729  
 평창 : 010-6433-8612    양산 : 010-6294-6126    김천 : 010-9091-4583  
 진주 : 010-3583-7139    울진 : 010-4597-5577    새창 : 010-6890-0365  
 익산 : 010-6610-2337    여수 : 010-3612-7784    고성 : 010-4578-0961  
 안산 : 010-2487-3393    대구 : 010-3821-4849    서산 : 010-7301-5854  
 화성 : 010-3168-9250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 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정안로 장안로 61(영화동)